



북한 노인들의 여가시간, 훈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상적이다.
(사진: 한국일보 9월15일자)

북한의 사회범죄 그 실체는 어떠한가

사회안전부에서도 대부분 논란이 주고 있어 활동가능하다.

나. 사회범죄

귀순자들은 북한에도 조직폭력배가 있고 강간, 간통사건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강간사건에 대해서는 '벌로 들어본 기억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빈부의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도 불법행위를 폭력형성한다고 한다. 북한에서 폭력배 생활을 했던 귀순자 이정찬씨는 '주(주)나 죽음이 아니라 10대후반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피학당한 뒤 '진달래', '꽃밭근위대', '해미' 등, 등의 이름으로 모여 다른 패거리와 집단싸움을 벌이는 정도라고 쓰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을 둘러싸고 벌이는 조직폭력배의 흥풍과는 개성이 전혀 다르다.

그런데 이들 청소년은 출신 성분이 나빠 '이치비' 노예로 출세하기는 힘들다고 포기한 사람이 많지만 당간부출신 자녀가 부모의 사회적, 정치적 권력을 배경으로 폭력조직에 가담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청소년들의 범죄행위를 자극하는 학파사상과 피폐사상은 북한에서 청소년 범죄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간부출신 자녀가 부모의 사회적, 정치적 권력을 배경으로 폭력조직에 가담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성립하는 있다고 한다.

당상과 출신성분이 강조되기 때문에 노동당원당들을 미끼로 한 고급간부들의 농락행위도 흔한 범죄의 하나이다. 83년에 귀순한 정범호씨는 안원현(경향)으로 알려진 친구가 나 여리명의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가 발각됐지만 친척(직위해제)되고 생활이 어려운 지적으로 쫓겨났을 뿐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에서는 또 다른 행위를 벌이진 않더라도 일이 고된 과로로 옮기는 방법으로 강요를 받는다. 북한에서 강요를 받는다. 북한에서 강요를 받는다. 북한에서 강요를 받는다.

북한에서내에서 가장 금기시되고 혹독한 처벌을 받는 범죄는 경제에 불만을 나타내거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저항하는 정치범죄이다. 그러나 일반주민들이 주로 저지르는 범죄는 무식함 또는 의식적으로 사회체제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는 정도이다.

주부수가 고정돼있던 그중에서도 남한방송을 몰래 듣다가 들켜 '완전히 가는' (북한사람들은 정치범으로 체포된 후 화가 끝나고도 본래의 직위를 잃고자 하는 경우를 이렇게 표현한다)사망도 있다.

정치범과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것은 집단농성장을 채운

살해한다.

평양구경이 소원인 비망란 여자에게 '여왕초대'에 평양시내에 들어보게 주었다. 평양방문 평성시 경비원이 수십명의 여자를 동향한 사건도 발각된 바 있다고 한다.

특히 고급 군관(군인)들이 군관가족이되고 싶어하는 여자들의 심리를 이용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아 북한 당국은 77년부터 군인이 부임하는 작업장은 남다른 구별해 배치하고 있다고 한다.

다. 정치범죄

북한에서내에서 가장 금기시되고 혹독한 처벌을 받는 범죄는 경제에 불만을 나타내거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저항하는 정치범죄이다.

그러나 일반주민들이 주로 저지르는 범죄는 무식함 또는 의식적으로 사회체제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는 정도이다.

주부수가 고정돼있던 그중에서도 남한방송을 몰래 듣다가 들켜 '완전히 가는' (북한사람들은 정치범으로 체포된 후 화가 끝나고도 본래의 직위를 잃고자 하는 경우를 이렇게 표현한다)사망도 있다.

정치범과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것은 집단농성장을 채운

한다거나 각 부파마다 있는 집안적 역사연구실에 불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예로 들 수 있다.

때로는 안원현(경향)을 폭행하고 권총을 빼앗거나 인민군이 탈영하는 일도 있지만 이런 경우 처벌받지나 '완전히 가는' 것을 각오해야 하기때문에 그의 자수 일이나지는 않는다.

유리가 주목할 것은 북한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처럼 범죄를 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일반 사회범죄의 경우 빈도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정도도 소박한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는 약한 편이다. 즉 교화소에 보내지 않더라도 일이 순조롭게 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한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제자를 강간한 교사같은 과잉처벌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보는 앞에서 공개처형한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사회범죄를 다 다루는데 있어 일반 범죄를 통해 알 수 있는것은 적체, 빈부의 격차가 커지는 점, 특히, 어느 사회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소비재가 부족하다는 점, 세태, 그러나 사회성원들이 나름대로 체제에 순응하여 살고 있다는 점, 사회, 사회성원들이 어느정도는 서로 믿고 지킨다는 점, 다섯째, 당정(사상)과 출신성분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등이다.

통일 비망록

금슬는 자레

1. 북한의 폭력적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
2. 북한의 교육제도
3. 북한의 와-식-주 생활
4. 북한의 사회범죄
5. 북한의 사회문제와 그 해결

(보문) 북한의 기본노선과 남북한 사회구조 비교고찰

김 환 석
(교양학부 강사)

어느 제때든지 사회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서 발생한 범죄의 성향과 빈도수를 분석해 보는 것도 빠른 접근방법중의 하나일 것이다. 특히 그 사회성원들의 빈부격차의 수준과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의 일면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도 범죄에 관심을 기울이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범죄를 살펴보는 것은 북한의 이면을 알 수 있는데 의미가 있었지만 그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사회에서 발생한 범죄의 정도와 성향, 빈도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기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범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제재에서 직접 삶을 영위했던 귀순자들의 경험담이 참조되었음을 밝혀둔다.

북한도 예외는 아니어서, 도단위 행정구역마다 1곳이상씩 있는 「교화소(교도소)」에는 「반동분자(정치범)」, 이외에도 강간범, 살인범, 폭력배등 일반범들이 수용해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처럼 일반범죄가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오를 만큼 빈도수나 정도에 있어 심각하지는 않다. 이 점이 북한의 범죄를 인식하는데 있어 전제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사회에서 일반범죄가 심각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북한사회가 절대적 수준에서는 가난하지만 빈부의 격차가 작아 크게 뻗을 수 없다는 점, 둘째, 사회가 처벌방식에 조제한

있어 범죄를 저지른 행동을 벌여주기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중중 하나를 들 수 있다.

가. 경제범죄

북한 경제범죄의 특색은 가기가작이 없다는 것이다. 개기개리 약간의 돈을 빌려주는 일도 없지 않지만 서로 차용중도 교환하지 않는다. 그만큼 이사회화하고 하고 어느정도는 서로를 믿고 지내는 듯이도 하다. 뿐만 아니라 경제는 다에서 갖고 있기때문에 자기 돈이 낱별 경이 있다는 것이 이중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소비재가 크게 도마라기때문에 평형, 절도등의 범죄는 자주 일어나고 있다. 평형의 경우는 대부분 물자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지위의 당간부나 경리직원에 의해 저질러진다.

지난 81년 4월 평안남도 남포에서는 다음해의 김일성 칠순대 주일연에 갈 나루에 출근할을 관리하던 22세연 처녀가 선물창고에 불을 지르고 자살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김일성과 나이가 같은 1912년생 노인들에게 준다는 나일은 육신이 담긴 관리관부에게 돈을 준 뒤 오감을 조종해 빼내다가 들봉이 났던 것이다. 이 사건이후 국가보위부와 사회안전부가 남포지역의 물자관리자들에게 대한 경정조사를 실시, 3백여건의 이상의 횡령사건을 적발할 적도 있었다 한다.

절도는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이다. 흉탄으로 해뿔아갈때에 가서 날려온 옷가지를 가져오거나 창고안에 놓 놓 놔둘을 때때로는 절도의 「소마한」수준이다. 공작-동지들은 자기 공장제품을 몇개씩 빼내기도 한다. 이렇게 흉탄 물건은 암시장상을 통해 거래된다.

지난 82년 귀순한 배병관씨는 「통제된 사회에서 암시장에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지 모르지만 분명히 암거래가 있다고 했다. 배씨가 살인 횡행도 안악군의 경우 6월에 한번씩 사는데 그때마다 아내들이 사서가지러 암거래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암거래상들은 북한에서는 특수신분으로 인정받은 중국인이나 고급간부들과 연결돼있고 국가보위부나

그런데 이들 청소년은 출신 성분이 나빠 '이치비' 노예로 출세하기는 힘들다고 포기한 사람이 많지만 당간부출신 자녀가 부모의 사회적, 정치적 권력을 배경으로 폭력조직에 가담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청소년들의 범죄행위를 자극하는 학파사상과 피폐사상은 북한에서 청소년 범죄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간부출신 자녀가 부모의 사회적, 정치적 권력을 배경으로 폭력조직에 가담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주부수가 고정돼있던 그중에서도 남한방송을 몰래 듣다가 들켜 '완전히 가는' (북한사람들은 정치범으로 체포된 후 화가 끝나고도 본래의 직위를 잃고자 하는 경우를 이렇게 표현한다)사망도 있다.

정치범과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것은 집단농성장을 채운

살해한다.

평양구경이 소원인 비망란 여자에게 '여왕초대'에 평양시내에 들어보게 주었다. 평양방문 평성시 경비원이 수십명의 여자를 동향한 사건도 발각된 바 있다고 한다.

특히 고급 군관(군인)들이 군관가족이되고 싶어하는 여자들의 심리를 이용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아 북한 당국은 77년부터 군인이 부임하는 작업장은 남다른 구별해 배치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내에서 가장 금기시되고 혹독한 처벌을 받는 범죄는 경제에 불만을 나타내거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저항하는 정치범죄이다.

그러나 일반주민들이 주로 저지르는 범죄는 무식함 또는 의식적으로 사회체제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는 정도이다.

주부수가 고정돼있던 그중에서도 남한방송을 몰래 듣다가 들켜 '완전히 가는' (북한사람들은 정치범으로 체포된 후 화가 끝나고도 본래의 직위를 잃고자 하는 경우를 이렇게 표현한다)사망도 있다.

정치범과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것은 집단농성장을 채운

살해한다.

평양구경이 소원인 비망란 여자에게 '여왕초대'에 평양시내에 들어보게 주었다. 평양방문 평성시 경비원이 수십명의 여자를 동향한 사건도 발각된 바 있다고 한다.

특히 고급 군관(군인)들이 군관가족이되고 싶어하는 여자들의 심리를 이용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아 북한 당국은 77년부터 군인이 부임하는 작업장은 남다른 구별해 배치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내에서 가장 금기시되고 혹독한 처벌을 받는 범죄는 경제에 불만을 나타내거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저항하는 정치범죄이다.

그러나 일반주민들이 주로 저지르는 범죄는 무식함 또는 의식적으로 사회체제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는 정도이다.

주부수가 고정돼있던 그중에서도 남한방송을 몰래 듣다가 들켜 '완전히 가는' (북한사람들은 정치범으로 체포된 후 화가 끝나고도 본래의 직위를 잃고자 하는 경우를 이렇게 표현한다)사망도 있다.

정치범과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것은 집단농성장을 채운

살해한다.

평양구경이 소원인 비망란 여자에게 '여왕초대'에 평양시내에 들어보게 주었다. 평양방문 평성시 경비원이 수십명의 여자를 동향한 사건도 발각된 바 있다고 한다.

특히 고급 군관(군인)들이 군관가족이되고 싶어하는 여자들의 심리를 이용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아 북한 당국은 77년부터 군인이 부임하는 작업장은 남다른 구별해 배치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내에서 가장 금기시되고 혹독한 처벌을 받는 범죄는 경제에 불만을 나타내거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저항하는 정치범죄이다.

그러나 일반주민들이 주로 저지르는 범죄는 무식함 또는 의식적으로 사회체제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는 정도이다.

주부수가 고정돼있던 그중에서도 남한방송을 몰래 듣다가 들켜 '완전히 가는' (북한사람들은 정치범으로 체포된 후 화가 끝나고도 본래의 직위를 잃고자 하는 경우를 이렇게 표현한다)사망도 있다.

정치범과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것은 집단농성장을 채운

살해한다.

평양구경이 소원인 비망란 여자에게 '여왕초대'에 평양시내에 들어보게 주었다. 평양방문 평성시 경비원이 수십명의 여자를 동향한 사건도 발각된 바 있다고 한다.

특히 고급 군관(군인)들이 군관가족이되고 싶어하는 여자들의 심리를 이용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아 북한 당국은 77년부터 군인이 부임하는 작업장은 남다른 구별해 배치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내에서 가장 금기시되고 혹독한 처벌을 받는 범죄는 경제에 불만을 나타내거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저항하는 정치범죄이다.

그러나 일반주민들이 주로 저지르는 범죄는 무식함 또는 의식적으로 사회체제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는 정도이다.

주부수가 고정돼있던 그중에서도 남한방송을 몰래 듣다가 들켜 '완전히 가는' (북한사람들은 정치범으로 체포된 후 화가 끝나고도 본래의 직위를 잃고자 하는 경우를 이렇게 표현한다)사망도 있다.

정치범과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것은 집단농성장을 채운

살해한다.

평양구경이 소원인 비망란 여자에게 '여왕초대'에 평양시내에 들어보게 주었다. 평양방문 평성시 경비원이 수십명의 여자를 동향한 사건도 발각된 바 있다고 한다.

특히 고급 군관(군인)들이 군관가족이되고 싶어하는 여자들의 심리를 이용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아 북한 당국은 77년부터 군인이 부임하는 작업장은 남다른 구별해 배치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내에서 가장 금기시되고 혹독한 처벌을 받는 범죄는 경제에 불만을 나타내거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저항하는 정치범죄이다.

그러나 일반주민들이 주로 저지르는 범죄는 무식함 또는 의식적으로 사회체제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는 정도이다.

주부수가 고정돼있던 그중에서도 남한방송을 몰래 듣다가 들켜 '완전히 가는' (북한사람들은 정치범으로 체포된 후 화가 끝나고도 본래의 직위를 잃고자 하는 경우를 이렇게 표현한다)사망도 있다.

정치범과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것은 집단농성장을 채운

살해한다.

평양구경이 소원인 비망란 여자에게 '여왕초대'에 평양시내에 들어보게 주었다. 평양방문 평성시 경비원이 수십명의 여자를 동향한 사건도 발각된 바 있다고 한다.

특히 고급 군관(군인)들이 군관가족이되고 싶어하는 여자들의 심리를 이용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아 북한 당국은 77년부터 군인이 부임하는 작업장은 남다른 구별해 배치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내에서 가장 금기시되고 혹독한 처벌을 받는 범죄는 경제에 불만을 나타내거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저항하는 정치범죄이다.

그러나 일반주민들이 주로 저지르는 범죄는 무식함 또는 의식적으로 사회체제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는 정도이다.

주부수가 고정돼있던 그중에서도 남한방송을 몰래 듣다가 들켜 '완전히 가는' (북한사람들은 정치범으로 체포된 후 화가 끝나고도 본래의 직위를 잃고자 하는 경우를 이렇게 표현한다)사망도 있다.

정치범과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것은 집단농성장을 채운

살해한다.

평양구경이 소원인 비망란 여자에게 '여왕초대'에 평양시내에 들어보게 주었다. 평양방문 평성시 경비원이 수십명의 여자를 동향한 사건도 발각된 바 있다고 한다.

특히 고급 군관(군인)들이 군관가족이되고 싶어하는 여자들의 심리를 이용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아 북한 당국은 77년부터 군인이 부임하는 작업장은 남다른 구별해 배치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내에서 가장 금기시되고 혹독한 처벌을 받는 범죄는 경제에 불만을 나타내거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저항하는 정치범죄이다.

그러나 일반주민들이 주로 저지르는 범죄는 무식함 또는 의식적으로 사회체제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는 정도이다.

주부수가 고정돼있던 그중에서도 남한방송을 몰래 듣다가 들켜 '완전히 가는' (북한사람들은 정치범으로 체포된 후 화가 끝나고도 본래의 직위를 잃고자 하는 경우를 이렇게 표현한다)사망도 있다.

정치범과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것은 집단농성장을 채운

살해한다.

평양구경이 소원인 비망란 여자에게 '여왕초대'에 평양시내에 들어보게 주었다. 평양방문 평성시 경비원이 수십명의 여자를 동향한 사건도 발각된 바 있다고 한다.

특히 고급 군관(군인)들이 군관가족이되고 싶어하는 여자들의 심리를 이용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아 북한 당국은 77년부터 군인이 부임하는 작업장은 남다른 구별해 배치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내에서 가장 금기시되고 혹독한 처벌을 받는 범죄는 경제에 불만을 나타내거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저항하는 정치범죄이다.

그러나 일반주민들이 주로 저지르는 범죄는 무식함 또는 의식적으로 사회체제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는 정도이다.

주부수가 고정돼있던 그중에서도 남한방송을 몰래 듣다가 들켜 '완전히 가는' (북한사람들은 정치범으로 체포된 후 화가 끝나고도 본래의 직위를 잃고자 하는 경우를 이렇게 표현한다)사망도 있다.

정치범과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것은 집단농성장을 채운

살해한다.

평양구경이 소원인 비망란 여자에게 '여왕초대'에 평양시내에 들어보게 주었다. 평양방문 평성시 경비원이 수십명의 여자를 동향한 사건도 발각된 바 있다고 한다.

특히 고급 군관(군인)들이 군관가족이되고 싶어하는 여자들의 심리를 이용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아 북한 당국은 77년부터 군인이 부임하는 작업장은 남다른 구별해 배치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내에서 가장 금기시되고 혹독한 처벌을 받는 범죄는 경제에 불만을 나타내거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저항하는 정치범죄이다.

그러나 일반주민들이 주로 저지르는 범죄는 무식함 또는 의식적으로 사회체제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는 정도이다.

주부수가 고정돼있던 그중에서도 남한방송을 몰래 듣다가 들켜 '완전히 가는' (북한사람들은 정치범으로 체포된 후 화가 끝나고도 본래의 직위를 잃고자 하는 경우를 이렇게 표현한다)사망도 있다.

정치범과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것은 집단농성장을 채운

살해한다.

평양구경이 소원인 비망란 여자에게 '여왕초대'에 평양시내에 들어보게 주었다. 평양방문 평성시 경비원이 수십명의 여자를 동향한 사건도 발각된 바 있다고 한다.

특히 고급 군관(군인)들이 군관가족이되고 싶어하는 여자들의 심리를 이용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아 북한 당국은 77년부터 군인이 부임하는 작업장은 남다른 구별해 배치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내에서 가장 금기시되고 혹독한 처벌을 받는 범죄는 경제에 불만을 나타내거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저항하는 정치범죄이다.

그러나 일반주민들이 주로 저지르는 범죄는 무식함 또는 의식적으로 사회체제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는 정도이다.

주부수가 고정돼있던 그중에서도 남한방송을 몰래 듣다가 들켜 '완전히 가는' (북한사람들은 정치범으로 체포된 후 화가 끝나고도 본래의 직위를 잃고자 하는 경우를 이렇게 표현한다)사망도 있다.

정치범과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것은 집단농성장을 채운

살해한다.

평양구경이 소원인 비망란 여자에게 '여왕초대'에 평양시내에 들어보게 주었다. 평양방문 평성시 경비원이 수십명의 여자를 동향한 사건도 발각된 바 있다고 한다.

특히 고급 군관(군인)들이 군관가족이되고 싶어하는 여자들의 심리를 이용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아 북한 당국은 77년부터 군인이 부임하는 작업장은 남다른 구별해 배치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내에서 가장 금기시되고 혹독한 처벌을 받는 범죄는 경제에 불만을 나타내거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저항하는 정치범죄이다.

그러나 일반주민들이 주로 저지르는 범죄는 무식함 또는 의식적으로 사회체제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는 정도이다.

주부수가 고정돼있던 그중에서도 남한방송을 몰래 듣다가 들켜 '완전히 가는' (북한사람들은 정치범으로 체포된 후 화가 끝나고도 본래의 직위를 잃고자 하는 경우를 이렇게 표현한다)사망도 있다.

정치범과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것은 집단농성장을 채운

살해한다.

평양구경이 소원인 비망란 여자에게 '여왕초대'에 평양시내에 들어보게 주었다. 평양방문 평성시 경비원이 수십명의 여자를 동향한 사건도 발각된 바 있다고 한다.

특히 고급 군관(군인)들이 군관가족이되고 싶어하는 여자들의 심리를 이용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아 북한 당국은 77년부터 군인이 부임하는 작업장은 남다른 구별해 배치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내에서 가장 금기시되고 혹독한 처벌을 받는 범죄는 경제에 불만을 나타내거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저항하는 정치범죄이다.

그러나 일반주민들이 주로 저지르는 범죄는 무식함 또는 의식적으로 사회체제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는 정도이다.

주부수가 고정돼있던 그중에서도 남한방송을 몰래 듣다가 들켜 '완전히 가는' (북한사람들은 정치범으로 체포된 후 화가 끝나고도 본래의 직위를 잃고자 하는 경우를 이렇게 표현한다)사망도 있다.

정치범과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것은 집단농성장을 채운

살해한다.

평양구경이 소원인 비망란 여자에게 '여왕초대'에 평양시내에 들어보게 주었다. 평양방문 평성시 경비원이 수십명의 여자를 동향한 사건도 발각된 바 있다고 한다.

특히 고급 군관(군인)들이 군관가족이되고 싶어하는 여자들의 심리를 이용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아 북한 당국은 77년부터 군인이 부임하는 작업장은 남다른 구별해 배치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내에서 가장 금기시되고 혹독한 처벌을 받는 범죄는 경제에 불만을 나타내거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저항하는 정치범죄이다.

그러나 일반주민들이 주로 저지르는 범죄는 무식함 또는 의식적으로 사회체제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는 정도이다.

주부수가 고정돼있던 그중에서도 남한방송을 몰래 듣다가 들켜 '완전히 가는' (북한사람들은 정치범으로 체포된 후 화가 끝나고도 본래의 직위를 잃고자 하는 경우를 이렇게 표현한다)사망도 있다.

정치범과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것은 집단농성장을 채운

살해한다.

평양구경이 소원인 비망란 여자에게 '여왕초대'에 평양시내에 들어보게 주었다. 평양방문 평성시 경비원이 수십명의 여자를 동향한 사건도 발각된 바 있다고 한다.

특히 고급 군관(군인)들이 군관가족이되고 싶어하는 여자들의 심리를 이용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아 북한 당국은 77년부터 군인이 부임하는 작업장은 남다른 구별해 배치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내에서 가장 금기시되고 혹독한 처벌을 받는 범죄는 경제에 불만을 나타내거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저항하는 정치범죄이다.

그러나 일반주민들이 주로 저지르는 범죄는 무식함 또는 의식적으로 사회체제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는 정도이다.

주부수가 고정돼있던 그중에서도 남한방송을 몰래 듣다가 들켜 '완전히 가는' (북한사람들은 정치범으로 체포된 후 화가 끝나고도 본래의 직위를 잃고자 하는 경우를 이렇게 표현한다)사망도 있다.

정치범과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것은 집단농성장을 채운

살해한다.

평양구경이 소원인 비망란 여자에게 '여왕초대'에 평양시내에 들어보게 주었다. 평양방문 평성시 경비원이 수십명의 여자를 동향한 사건도 발각된 바 있다고 한다.

특히 고급 군관(군인)들이 군관가족이되고 싶어하는 여자들의 심리를 이용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아 북한 당국은 77년부터 군인이 부임하는 작업장은 남다른 구별해 배치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내에서 가장 금기시되고 혹독한 처벌을 받는 범죄는 경제에 불만을 나타내거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저항하는 정치범죄이다.

그러나 일반주민들이 주로 저지르는 범죄는 무식함 또는 의식적으로 사회체제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는 정도이다.

주부수가 고정돼있던 그중에서도 남한방송을 몰래 듣다가 들켜 '완전히 가는' (북한사람들은 정치범으로 체포된 후 화가 끝나고도 본래의 직위를 잃고자 하는 경우를 이렇게 표현한다)사망도 있다.

정치범과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것은 집단농성장을 채운

살해한다.

평양구경이 소원인 비망란 여자에게 '여왕초대'에 평양시내에 들어보게 주었다. 평양방문 평성시 경비원이 수십명의 여자를 동향한 사건도 발각된 바 있다고 한다.

특히 고급 군관(군인)들이 군관가족이되고 싶어하는 여자들의 심리를 이용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아 북한 당국은 77년부터 군인이 부임하는 작업장은 남다른 구별해 배치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내에서 가장 금기시되고 혹독한 처벌을 받는 범죄는 경제에 불만을 나타내거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저항하는 정치범죄이다.

그러나 일반주민들이 주로 저지르는 범죄는 무식함 또는 의식적으로 사회체제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는 정도이다.

주부수가 고정돼있던 그중에서도 남한방송을 몰래 듣다가 들켜 '완전히 가는' (북한사람들은 정치

뜨거운 감자를 쥔 미대사관

—한미관계 공개토론회의 귀추가 주목된다



9월22일 대학로에서 열린 「민자당일당국회해산과 민중생존권 쟁취대회」에서 한 학생이 성조기에 불을 붙이고 있다.

주한미대사관은 오늘(25일) 전민회와 전민연으로 「한미관계 공개토론회」에 관한 자신의 최종 입장을 밝힌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전대협과 전민연은 오늘(25일) 22일 한미관계에 관한 전민회 공개토론회를 미대사관에 제안했으나 토론회의 형식을 둘러싼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어릴적에 걸린 서한만 오갔을 뿐 회담은 성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주한미대사관은 최근 민회 여러 일동시각의 명의로 우리측에 보내는 편지에 따르면 주한미대사관측에 대해 「북한이 어찌해서 그토록 폐쇄적이고 군사독재적인 사회를 유지해야 하며 그 군대의 대부분을 남북으로 갈라놓아 있는 국가에 대한 어떤 평화적인 태도를 발전시키지 않겠는가? 그리고 왜 우리측은 「미국이 남한에 핵무기 1천1백여기를

샘이 되었다. 논쟁적임을 피하면서도 고강도를 달리고 있는 민족민주운동정명의 반미의식에 휘말릴수록은 격이 되고 있다. 미대사관측에서는 이같은 토론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한단계 높은 차원에서 토론을 이루어야 하는 의도를 품고 있다. 그러나

로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무력자유화만은 한국군 로자들과 소비자들의 반향을 증대시킬 것이며 만약 한국의 젊은이들이 인색한 민족주의와 더불어 폐쇄된 사정고수를 택한다면 우리 한국은 옛날의 가난으로 돌아갈 것임」이라고 하는 등까지 절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한국학생들을 겨냥하여 「상남주의를 지체하고 위협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노골적인 어투와 「미대사관은 모든 대화를 언제나 환영한다.는 오히려 한국측에 한계 열어놓고 있다.

이에대해 회담중인 실무대표 전민연 소장은 부대변인인 「공작정치의 명사 그레그 다운」을 앞세워 미대사관측에서 이같은 토론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한단계 높은 차원에서 토론을 이루어야 하는 의도를 품고 있다.

이런 회담을 제안하고 된 전대협과 전민연은 그레그 다운은 건배사로 있을뿐 아니라 대사는 개 회신과 「대담은 선진국들은 이들과 대화로서의 회담이야말로 합을 누누히 강조하고 있다.

「미대사관을 한반도문제의 대화·협약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조국통일과 민중생존권에

지난 8월22일에 시작된 페르시아만의 불꽃이 아직도 꺼지지 않은 채 7주가 지났다. 미국이 사우디에 파병하고 이에 대응한 이라크가 쿠웨이트 주재 대사관 폐쇄를 명

함에 대한 공약과 이라크측에 대한 위협이라는 요소의 외가해 이루어진다. 소련은 국경에서 지나치게 가까운 지역에서 진행되어 소련 중앙아시아와 키르키스지방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집단안보체제 구상을 밝히지 않을 경우 중동지역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이같은 중동지역의 불안정성은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라크는 중동지역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이라크는 중동지역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이라크는 중동지역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60년대의 말부터 추진된 자위대의 해외파병 문제가 중동지역에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여 20일 「UN」에 참가하는 자위대원들은 그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중동사태, 어디까지 왔나

소련, 미국과 지역분쟁 대처주도권 분할
일본, 자위대파병으로 강대국지위 구축의도
이란, 친이라크로 완전 선회 하기 어려울 듯

평화로 한때 무력충돌의 위기가 감기도 했었다. 이후 여러제도를 통한 협상이 진행되면서 중동사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듯 했으나 최근 쿠웨이트 주재 프랑크, 캐나다, 벨기에와 네덜란드 공관에 진입하여 외교관들을 연행하고, 오만, 만을 공격중인 미국과 소련에 대항하여 전방에서 정전명령을 무시한 이라크 유조선이 발포하는 사건이 일어나 이 지역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소를 중심으로한 냉전적 서가 붕괴되고 평화와 화해의 물결이 흘러오는 가운데라던 이 사건은 당사국과 주변 아랍권은 물론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충격을 주며 지구상에 잠시 드리워졌던 평화의 분위기를 끌어내고, 세계는 여전히 평화의 날이 저배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 하겠다.

특히 이 사건은 이 지역 패권자로서 강령을 내렸던 미국과 소련의 패권주의가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 중동사태의 패권을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미 이라크가 내놓은 협상안을 거부하고 정전제에 돌입한 미국은 개입당시 느꼈던 목적, 석유자원, 안전한 확보, 국제정치에서 자국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 외에도 이 지역 국가들에게 무기를 팔아 재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태 해결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라크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반응을 보여 이라크의 입장이 이라크에 유리할 수 있다.

중동안 이란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합병과 함께 미국과 파병을 동시에 비난하는 입장이었으나, 베이커 미국 부장관이 미국의 장기주둔 가능성을 시사하고 이 지역

는 점과 미군이 중동지역에 중장 배치되어 이 지역에서 힘의 균형이 미국쪽으로 기울어 결국 소련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란이 친이라크로 완전 선회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러나 79년 혁명 이래 단절되어있던 서방 강대국과 이웃 아랍국가들과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란이 친이라크로 완전 선회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라크가 미국과 소련의 이러한 우위를 해소하고, 지역분쟁에 대처하

다고 결정할 것이다. 국제적인 평화회복-유지활동에 일본이 기여한다는 이 물결에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중동분쟁에 따라들 경우 무기가 없으면 제비만처럼 외가하여 군인으로서 강한 힘을 받을 것이다. 스마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마르코의 말대로 일본군부가 이라크를 통해 중동지역에 파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일본이 미국의 분당 압력을 제방의 기피로 이용하여 군사대결을 꿈꾸는데 비하여 물이 담긴 그 성격이 다르다 하겠다.

지난 8월30일 미국이 제안한 다국적 기구방안의 본질은 제방의 압박이 지금까지 미국의 최후주요였던 중동지역에 미국의 고압포를 확산시켜 제방의 권위주의를 강화하려는 측면이 강할 것이다.

한미관계는 그러나 기존에 무언지조와 모든 상태에서 한미관계는 제방의 권위주의를 강화하려는 측면이 강할 것이다.

특히 미-아랍화현상 속에서 6.25전쟁으로 시작된 이라크의 반미분쟁은 차라리 넘어서서 반미분쟁을 추구하는 행위는, 한미관계의 기인한 한국전쟁이 누구에게도 이익을 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정 호 영
(대학원 동구지역학과 석사과정 2학기)

전대협·전민연 현안문제 책임있는 답변요구
미대사관 사적인 회담통해 공작정치로 격하

회담성사의 결실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회담의 「공작성」 여부이다.

우리측은 「한미관계의 존엄이 걸린 사안의 중대성」을 내세워 회담은 기자회견을 자유로운 취재와 방청의 절차가 보장되는 형식을 제안한 반면, 미국측은 사적인 원탁회담(private round-table discussion)의 형식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회담의 형식을 둘러싼 논란마저도 결국 회담의 내용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회담내용으로 주한미군·수입 개방·한반도통일·장주항행·내정간섭등 미국측으로서는 공개된 공간에서 학제야만론 전열의 「토론」에 불이켜는 그야말로 민감한 사안들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5월22일 전달한 우리측의 「주한미대사관에 보내는 공개서한」과 이에 대한 미대사관측의 회신 내용은 회담에 임하는 양측의 태도를 보다 분명히 그려내고 있다.

배치해 놓음으로써 북한측의 방위를 휴전선 부근에 집중시키게 만들고 그 사안을 포함하여 국군전 지휘관에게 미국이 가지고 있음은 주권국가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회담의 형식을 둘러싼 논란마저도 결국 회담의 내용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회담내용으로 주한미군·수입 개방·한반도통일·장주항행·내정간섭등 미국측으로서는 공개된 공간에서 학제야만론 전열의 「토론」에 불이켜는 그야말로 민감한 사안들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5월22일 전달한 우리측의 「주한미대사관에 보내는 공개서한」과 이에 대한 미대사관측의 회신 내용은 회담에 임하는 양측의 태도를 보다 분명히 그려내고 있다.

토론 참석자에 있어서 당초 우리측이 제안한 중립적 전대협·전민연 학생 추진위원회, 이해학 전민연조국통일회와 국군전 지휘관에게 미국이 가지고 있음은 주권국가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회담의 형식을 둘러싼 논란마저도 결국 회담의 내용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회담내용으로 주한미군·수입 개방·한반도통일·장주항행·내정간섭등 미국측으로서는 공개된 공간에서 학제야만론 전열의 「토론」에 불이켜는 그야말로 민감한 사안들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5월22일 전달한 우리측의 「주한미대사관에 보내는 공개서한」과 이에 대한 미대사관측의 회신 내용은 회담에 임하는 양측의 태도를 보다 분명히 그려내고 있다.

미국은 어떤 존재인가를 국민들에게 폭로하기 위한 것이 이번 회담의 목적」이라는 전대협·전민연 조국통일회의 발제문 전대협·전민연 조국통일회의 발제문 전대협·전민연 조국통일회의 발제문

미국은 어떤 존재인가를 국민들에게 폭로하기 위한 것이 이번 회담의 목적」이라는 전대협·전민연 조국통일회의 발제문 전대협·전민연 조국통일회의 발제문

미국은 어떤 존재인가를 국민들에게 폭로하기 위한 것이 이번 회담의 목적」이라는 전대협·전민연 조국통일회의 발제문 전대협·전민연 조국통일회의 발제문

미국은 어떤 존재인가를 국민들에게 폭로하기 위한 것이 이번 회담의 목적」이라는 전대협·전민연 조국통일회의 발제문 전대협·전민연 조국통일회의 발제문

미국은 어떤 존재인가를 국민들에게 폭로하기 위한 것이 이번 회담의 목적」이라는 전대협·전민연 조국통일회의 발제문 전대협·전민연 조국통일회의 발제문

미국은 어떤 존재인가를 국민들에게 폭로하기 위한 것이 이번 회담의 목적」이라는 전대협·전민연 조국통일회의 발제문 전대협·전민연 조국통일회의 발제문

미국은 어떤 존재인가를 국민들에게 폭로하기 위한 것이 이번 회담의 목적」이라는 전대협·전민연 조국통일회의 발제문 전대협·전민연 조국통일회의 발제문

미국은 어떤 존재인가를 국민들에게 폭로하기 위한 것이 이번 회담의 목적」이라는 전대협·전민연 조국통일회의 발제문 전대협·전민연 조국통일회의 발제문

미국은 어떤 존재인가를 국민들에게 폭로하기 위한 것이 이번 회담의 목적」이라는 전대협·전민연 조국통일회의 발제문 전대협·전민연 조국통일회의 발제문

스페인어사전의 최대 걸작 !!!
“누에보 西韓辭典”
NUEVO Diccionario Español-Coreano9월 15일 발행
민용태 박사/김수
김충식 선생/편저
값 25,000 원

이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다.

“나는 오늘 또다시 김충식선생의 이 부서를 감명의 감정에 젖는다... 김충식선생의 이번 사건은 그 많은 불완전과 착오가 스스로 빛나는 거대한 작품을 가진 역작 중의 역작이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김충식선생은 벌써 「한사자전」까지 합쳐 여덟 권의 서반어 사전들을 만들어 냈다. 한국에서 서반어 사전학을 두고 김충식선생만 커다란 공적을 이룩한 분이 없다.

대학에서 한문과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이룩하지 못한 역작을 대학 밖에서 스스로의 뼈를 깎는 인고와 노력과 연구로 이루어 낸 것이다...” (민용태박사의 김수의 발 중에서)

※ 국내외에서 발행된 어떤 형태의 서반어 사전이라도 차액만 수령하고 교환해 드립니다. (신착 300명만)

“月刊 스페인어세계”
EL MUNDO ESPAÑOL

12월 창간기념 원고를 기다립니다.

◎ 시, 소설, 단편 등 우리 작품을 서반어로, 서반어 작품을 한글로 번역하여 본사로 보내면 본지에 1년간 게재된 작품중에서 분야별로 최우수작 1편을 뽑아 EL PREMIO DE CERVANTES 상패와 조정의 상금을 지급합니다.

◎ 원고는 수시 접수하고 접수된 원고는 반환치 않습니다.

◎ 문의처 : 735-6734 도서출판 월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19-1
경일빌딩 217호(YMCA 후문 안)

도서출판 월출

외대발전을 재조명한다

3348



한가위 앞둔 농촌, 들녘에는 수심만...



가을 농작물 등 앞으로 전개될 농촌활동에서는 2차에 걸친 농민대회를 고강된 기운을 추켜세우며 투쟁으로 발전시켜 농민의 권익을 찾는데 도움을 주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부안지구

『봉이』는 비를 맞으며 물결까지 차인 들에서 진행되는 제초작업, 퇴각한 바닷물에서 거머잡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농민, 학생들의 모습은 물과 화염병만으로도 인식이된 대항쟁을 농촌의 현실을 고전하며 보여주는 농민의 아들-딸이다. 이는 학생들의 모습은 물과 화염병만으로도 인식이된 대항쟁을 농촌의 현실을 고전하며 보여주는 농민의 아들-딸이다. 이는 학생들의 모습은 물과 화염병만으로도 인식이된 대항쟁을 농촌의 현실을 고전하며 보여주는 농민의 아들-딸이다.

전북 부안

UR저지, 추곡수매가 투쟁 발판삼아야

경기도 평택 핵무기 배치할 미군기지 이전 반대해야

농민들이 2차 농민대회를 고강된 기운을 추켜세우며 투쟁으로 발전시켜 농민의 권익을 찾는데 도움을 주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모습은 물과 화염병만으로도 인식이된 대항쟁을 농촌의 현실을 고전하며 보여주는 농민의 아들-딸이다.

—본교 농활지역인 전라북도 부안군과 경기도 평택군을 찾아서

평택지구

가을 추수를 맞아 추경개발을 위한 준비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교 유인 평택지구에서 농촌활동은 전진시켜 왔는데 그간의 농촌활동이 농민, 학생들의 굳건한 연대의 힘을 바탕으로 한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추경개발을 계기로 농촌활동은 전진시켜 왔는데 그간의 농촌활동이 농민, 학생들의 굳건한 연대의 힘을 바탕으로 한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농촌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농민들의 권익을 찾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취재팀)

협명식 기자
이일주 기자
박현숙 기자

이 부안고 소작농의 비율이 약30%정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농촌활동을 진행하는데 있어 보다 효율적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추진되는 농촌활동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농민들의 권익을 찾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본교 유인평택지구의 농촌활동은 추경개발을 계기로 농촌활동은 전진시켜 왔는데 그간의 농촌활동이 농민, 학생들의 굳건한 연대의 힘을 바탕으로 한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대항쟁으로 인한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비록 1년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수감생활을 했지만 석방후에는 끊임없이 구국선내투쟁을 전개해왔으며, 나중은 출간과 동시 많은 단식투쟁으로 위기를 넘겨 버렸으며 임원직도 겸임했다.

탄압불감증

22명의 어머니와 함께 바에서 싸웠을 것으로 전정향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의원이 대항쟁 학생들의 싸움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오로고 윤근도 눈에 맺힌 농촌활동을 하나하나씩 같이 해 보자고 하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투쟁할 것임이 분명하다. 한평생 이렇듯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계속될 것이다.

(김인숙기자)



협과 평화의 합수관계

델라웨어대학교 동계 영어연수에 관한 안내

- 연수조건**
연수생은 영어, 전수생은 미국 University of Delaware (델라웨어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어야 한다. (2월 22일 입학)
- 경비·총액**
연수생은 \$1,350, 전수생은 \$1,500이다. (2월 22일 입학)
- 학점인정**
연수생은 본교에서 3학점을 인정받는다. 전수생은 4학점을 인정받는다.
- 신청기간**
연수생은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한다. 전수생은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한다.
- 기타사항**
연수생은 8시간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사서시험을 치른다. 전수생은 8시간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사서시험을 치른다.

학생처장

외대 사랑의 마음으로

■ 각 분야의 인재가 모여 멋진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흥선그룹